

W_F_730

한 맷힌 섶섬 뱀

2019년 7월 9일, 서귀포시 송산동(보목동) 한우지 씨 댁, 문순덕 · 김은정 조사.
한우지(남, 1955년생, 서귀포시 보목동)

- 서귀포시 보목동 출생, 군대 생활 외에는 보목동에서 거주하고 있다.

• 줄거리: 섶섬에 몇 백 년 된 구렁이가 살고 있었는데 구렁이가 용이 되고 싶어 용왕에게 빌었다. 용왕은 직구섬과 섶섬 사이에 여의주를 두었는데 그것을 찾으면 용이 되게 해주겠다고 했다. 그러나 그 구렁이는 여의주를 찾지 못해 용이 되지 못했다. 그 뒤로 그곳에는 한이 맷힌 뱀 때문에 자욱한 안개가 낀다고 전한다.

[조사자] 섶섬 얘기도 들었수가?

[제보자] 섶섬은 숲이 많아가지고 땘감 잊지 않수가? 설피할 때 뭐라 해야 되나. 설피라고 껍데기 아니고 가지 같은 거 할 때 설피. 여긴 땘감이 없어가지고 옛날에 한번 저기 난방도 제대로 안 됐고 그렇다고 가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 당시에 섶섬에 가가지고 땘감을 해서 왔다고 합니다. 숲이 많이 잊었던 섬이라고 해서 섶섬이라고 했다고 합니다.

[조사자] 그 이름 말고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나 그런 건 엊수가?

[제보자] 설피섬, 설피섬 하다가 섶섬이랜. 섶섬에 뱀이 몇 백 년 된 뱀이 살았던 하는 디 제가 알기로는 직구섬 용이 되고 몇 백 년 된 구렁이가 용이 되고 싶어가지고 용왕님한테 비니까 그러면 직구섬과 섶섬 사이에 여의주를 놓아뒀으니까 그거 찾아보면 용이 되게 해 주마.

그래서 그 뱀이 찾아보다가 찾지 못해가지고 죽었답니다. 그래서 섶섬에 지금도 거기에 불이 난 거처럼 안개가 자욱해. 안개가 껴. 화재난 줄 알아가지고 출동을 했어 몇 번. 우리가 보기에도 화재난 거 같아.

안개처럼 오는데 연기처럼 보이는 안개가 있어요. 그게 서귀포 소방서 전화하면 알겁니다. 가끔씩 그래가지고.

[조사자] 불난 줄 알아그네.

[제보자] 예. 우리도 그리고 관광객들이 신고도 하고.

[조사자] 그런 날은 무슨 날이꽈?

[제보자] 모르죠. 그 뱜이 용이 되고 싶어서 했는데 한이 맷허가지고 그렇게 한다고는 말을 들었어요. 지금도 재작년에도 화재난 줄 알아가지고 출동했었습니다. 우리가 보기에도 가당 보면 정말 화재난 거처럼 보여요.

[조사자] 안개가 연기처럼마씀?

[제보자] 예.

- 핵심어: 섬섬, 뱜, 안개, 용, 구렁이, 여의주, 연기